2026년 8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허남길 목사]

요한삼서 1:1 ~ 8
“진리 안에서 행합시다”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여기에 가이오 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삼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직접 전도해서 양육한 믿음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삼1: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 곧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엔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가이오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착한 마음이라든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랑 못 해.”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가족과 성도, 그리고 나아가서 불신자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삼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의 편지입니다. **요삼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삼박자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어도 범사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은 영혼이 잘 안 됐습니까? 베드로는 잘 안 됐습니까? 그들 다 순교했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이오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큰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혼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안에 다 속해 있으니까 영혼이 잘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첫째, 예수 믿고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신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영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두 번째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선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영혼이 잘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시고 성품도 온유해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형통 또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생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나도 다 안다. 날아가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는데 너희는 새보다 귀중하지 않느냐. 많은 소유를 가진 것보다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안이에요. **요삼1: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일주일, 몇 달 길게는 2년 있다가 또 옮겨 다녔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잠자리도 대접하

고 먹을 것도 대접하고 또 갈 때 여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많이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대접을 잘하니까 그런 대접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 사람에게서 그것을 듣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훌륭하게 예수님 잘 믿고 전도자를 돕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들 자주 오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헌금해서 그분들이 다니도록 여비를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왜 자꾸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오나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삼1:4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참 행복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옛날에 학생 때 왔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동안 지금 이제 40년이 넘었죠. 40년 넘게 제가 10번 예배당을 옮겼습니다. 10번 옮겼는데 10번 옮겨도 아직 따라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훌륭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믿어준 거예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목회에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성도들이 불신자로 와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받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 보면 그게 목사의 보람이에요. 제가 뉴라이프를 자꾸 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의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이러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삼1:5-6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서 교회 앞에서도 가이오를 증거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누구일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누군지 말 안 할게요. 많아요.

요삼1:7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요삼1:8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복음 진리 전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과 기도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선교는 제가 가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됐지만 선교는 교회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진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음 사역에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헌금함을 통해 전적으로 주의 진리에 동참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http://www.onnurimission.org